



**현대차 전주공장, 생명나눔 직원 1천명 헌혈 '도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헌혈연구가 급감해 심각한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정장 임민규) 직원들이 올 한 해 동안 직원 1천명 헌혈 참여 목표에 도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1천명 참여 목표 달성 시 헌혈 참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통해 제주도 2박3일 숙박권을 제공하자는 등 회사 차원에서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운동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공식기록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22년 간 현대차 전주공장은 매년 평균 305명씩 누적 6,701명의 직원들이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 지역별 혈액원을 방문해 개별적으로 참여한 사람까지 합하면 최소 7,000명 이상이 사랑의 생명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북대병원 간호교육실 병원발전 후원금 전달**

전북대학교병원 간호부 간호교육실이 교육전담 시범사업에서 교육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받은 상금 500만 원 전액을 병원 발전을 위한 후원금으로 21일 전달했다.

전달식은 본관 온고을홀에서 유희철 병원장, 김진우 사무국장, 김경희 간호부장, 양혜라 병동간호과장을 비롯한 간호교육실 간호사 9인이 참석과 함께 마련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전북대병원 간호교육실이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한 교육전담 시범사업에서 교육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수상한 상금이다.

전북대병원 간호교육실은 간호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교육계획, 시행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아람 기자



**원산소방서 전주대 학생의용소방대, 연탄나눔 봉사**

전주원산소방서 소속 전주대학교 대학생전문의용소방대원들의 나눔봉사실현 현장에서 나온 따뜻한 소리다.

지난 21일 유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 후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소외계층들에게 따뜻한 나눔활동이 펼쳐졌다.

이번 연탄나눔은 지역 취약계층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대학생전문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대원 간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전주대학교 대학생전문의용소방대원 및 학생, 소방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연탄배달 봉사는 관내 취약계층(원산구 남고산성길 25 인근) 27구에 연탄 500장을 전달하며,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김장수 전주원산소방서장은 "몸을 바쳐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연탄채취, 지역사회의 곳곳에 사랑과 온기를 전달한 대학생전문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잘 전달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은경 기자

**장애인복지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운영**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운영 기관으로서 전라북도 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으로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5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라북도와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6종(한소네, 소리앤소리, 3STAR, 비주름, 모모야모모, 보이스랩PR) 총 40대의 최신기기를 구비하고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정보취득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로 광학 문자 판독기를 임대하고 있는 한 이용자는 "기기의 도움으로 대학에서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고 있으며 지난 학기에는 1등을 했다"고 감사했다. /임종은 기자

**“꿈을 잃지 말고 당당히 맞서 나가길”**

**전주교대,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1일 황학당에서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270명, 석사 50명 등 총 320명이 학위를 받았다.

한편 전주교대는 1923년 설립해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설립 이래 학사 약 2만 5천명, 석사 약 2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장상(1명) △교육감상(1명) △동창회장상(1명) △한국교회총회장상(1명) △KBR국민은



행장상(1명) △공로상(2명) 등 총 7명이 수상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축하 영상을 통해 "100년의 역사와 함께 초등교육 명문으로 자리잡은 전주교대에서 4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교육현장에서 맘껏 펼칠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축사에서 "스스로 노력해 얻은 귀한 결실"이라며 "때론 한계에 부딪거나 잠시 멈추는 때가 오더라도 꿈을 잃지 말고 당당히 맞서 나가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장수군 계약학과’ 전북대 농업시스템학과 1기 학위수여식**

장수군 계약학과인 전북대 농업시스템학과 1기 학위수여식이 2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9년 3월에 첫 입학한 학생들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업과 학업을 병행한 끝에 귀한 결실을 맺게 됐다.

학위수여식은 졸업생, 재학생, 가족 및 학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졸업생을 축하하며 졸업생 22명의 건승을 비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와 생업 등으로 어려운 학습 여건 속에서도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졸업생들은 가족과 후배들의 축하 속에서 졸업의 기쁨을 만끽했다.

최훈식 군수는 "긴 시간 동안 학업의 꿈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신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이 밝게 빛나길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평화2동, ‘요구르트 주고받는 우리동네 이웃소식’ 협약 체결**

평화2동 전석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채규성 평화2동장, 장철수 주민자치위원의 위원장, 박혜란 통장협의회장, 김용우 한국아유르트 평화점장은 지난 20일 동네복지특화사업 「요구르트 주고받는 우리동네 이웃소식 사업」 협약식을 체결한 것이다.

“요구르트 주고받는 우리동네 이웃소식” 사업은 독거세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요구르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따라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요구르트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 돌봄까지 이어지게한 평화2동은 특화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평화2동 지사협 전석진 위원장은 “본 사업은 2018년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관내 독거세대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 예방 등의 계기를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는데에 기여하고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아유르트 평화점 김용우 점장은 “요구르트 사업 활성화에 힘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며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화2동 채규성 동장은 “본 사업을 계기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언제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게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확충에 솔선수범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평화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후원금을 포함한 공동모금회 평화2동 동네복지기금으로 진행된다. /김영태 기자



**중화산1동 주민 위한 자생단체장 간담회 개최**

지난 21일 유은례 중화동장은 10여 개 관내 자생단체장과 주민위한 소통의장을 만들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유 동장은 시·동정 소식 전달을 하고 참석분들과 동현장의 생생한 의견에 대해 자유로운 소통을 가진 것이다.

특히 이자철 통해 유 동장은 자생단체를 주축으로한 주민협력사업과 여러불편사항 등에 대한 추진방안 등을 집중 토의했다.

여기에 동반자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교환하는 뜻 깊은 자리를 보였다.

유은례 중화동장은 “지역발전 위한 행보마다 자생단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살기좋은 중화산동을 만들기 위해 자생단체의 직접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우석대, 전임교원 5명 정년퇴임식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1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전임교원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년퇴임한 교원은 천은홍(컴퓨터공학부)·박희태(뮤지컬학과)·이상룡(한예과)·육상원(한예과)·문장원(유아특수교육과) 교수 등 총 5명이다.

남 총장은 이날 정년퇴임하는 교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와 정부포상 등을 전달했다.

천은홍 교수는 녹조근정훈장을, 육상원 교수는 대통령 표창을 문장원 교수는 교육부 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남천현 총장은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수십 년간 교단에 몸담으시며 대학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교수님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우리 대학교가 성장을 거듭해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농아인협 진안군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전북농아인협회 진안군지회(지회장 이용원)는 21일 진안군 목욕예식장에서 회원 및 내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용원 지회장의 기념사와 함께 유공자 표창 수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원 지회장은 “지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힘은 회원 여러분의 화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화합 단결하는 농아인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 관계자는 “농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지회는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농아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유태만 기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남춘회, 장학금 전달**

남원지역 기관장포임 남춘회(회장 최경식 남원시장)와 한국농어촌공사남원지사(지사장 이양희)에서는 21일 관내 중학생 2명에게 각 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춘회는 관내 25개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까지 코로나19 등으로 활동에 주춤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으로 그동안 남원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경식 남춘회 회장은 “지역 사랑과 후진 양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학사업에 최선을 다 해 나갈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은행, 부안군에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부행장 김영민)은 지난 20일 부안군청을 방문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150세트(45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전북은행의 2023 JB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행사 추진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을 같이하고자 즉석밥, 라면, 칫솔 등 10종의 식품 및 잡화를 전북은행 지역사랑 봉사단원들이 직접 선물 꾸러미로 만들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병무청, 전반기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 개최**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과 제35사단(사단장 오혁제)은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전반기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북지방병무청과 수임군부대(35사단), 각 군 동원업무 관계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병력동원 지정결과 분석과 지정방안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군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병력동원 업무발전을 도모해, 유사시 완벽한 병력 동원태세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